

“젊은이들 1987년 진실 더 많이 알았으면”

‘1987 이한열’ 책 펴낸 자유기고가 김정희 씨

1987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 인 해다. 수십 년간 지속된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직전제 개헌안을 쟁취했다.

박종철 죽음, 6월 민주항쟁 등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 상황과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광주 출신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한 달과 그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분투기도 빼놓을 수 없다.

자유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희(사진) 씨가 최근 ‘1987이한열’ (사회평론)을 펴내 화제다. 최근 전화 통화에서 저자는 책을 내게 된 계기와 과정, 이후의 계획 등을 밝혔다. 이한열기념사업회 일도 관련하고 있는 저자는 “1987년 6월 항쟁에 쓰러진 이한열은 6월에 가장 먼저 꽃 피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한열기념사업회 등에서 1987년 당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지는 의견을 나눴어요. 동일한 상황, 사건임에도 조금씩 다르게 경험되는 부분이 있어 당시의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30주년을 전후해 책을 발간하면 의미가 더 각별할 거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한열기념사업회의 기획과 김 씨의 집필로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좀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와 외부에서 보

이한열 열사와 연세대 86학번 동기

쓰러진 날부터 장례식까지 책으로 정리

스토리펀딩 통해 많은사람 참여 유도

이한열 모친 담담한 에필로그도 담겨

내내 자료를 토대로 책을 만들었죠. 당시 시위 진압을 했던 전경들 중에서도 사진을 보내온 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 씨는 이한열과 어떤 관계일까. 서울이 고향인 저자는 이한열과 같은 연세대 86학번 동기다. 이한열은 경영대생이었고 김 씨는 사학과생이었다.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김 씨는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시위 현장에 있었으며 그 인연으로 2011년부터 이한열기념사업회 일을 하고 있다.

김 씨는 “그날(87년 6월 9일)집회가 끝나고 있는 저녁 모임에서 이한열 소식을 들었다”며 “시위대 맨 앞에 있던 경영대생이 최루탄에 맞아 위독한 상태라는 말에 다들 안타까웠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책에는 이한열이 의식을 잃은 날부터 장례식이 거



행된 7월 9일까지 약 한 달간의 궤적이 수록돼 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한열과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경영학과 동기들은 이한열을 합리적이고 다감한 친구로 기억한다. 동기 조성훈은 “차분하고 성격도 부드러운 친구라 여느 운동권 친구들과 달리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지인인 남현영의 이야기는 이한열의 인간적이며 신의가 담긴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한열이는 시위 때 맨 앞에 서는 게 무섭다고 했고, 그런 솔직한 때문에 과격한 남학생들한테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죠. 그래서 소크(수비대)로 나서는 걸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이한열이 쓰러진 후 공권력이 과립했던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했다. 안기부 요원은 세브란스 병동을 감시했고, 경찰들은 시신을 압수해 가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한열의 죽음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반 묘역을 강권했습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 5·18 묘역에 묻혔지만 공권력이 보인 공작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병원을 지켰고, 그 뜻이 모여 독재정권 타도의 불씨가 되었다. 이밖에도 책에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쓰러진 학우를 부축한 이종창, 이한열의 신발을 주워 가족에게 전달한 이정희 등 동문들의 기억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한열 어머니의 담담한 에필로그는 심금을 울린다.

김 씨는 “책과 영화가 흥행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젊은이들이 당시의 진실을 많이 알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한열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임영준 교수팀

‘지질막 수송단백질…’ 연구

미국국립과학원회보 게재

전남대학교 약학대

학 임영준(사진) 교수

팀의 ‘지질막 사이의

수송단백질에 의한 스

테를 운반의 구조적

기전’에 관한 연구 결

과가 최근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됐다.

임 교수가 교신저자로 수행한 이 연구결

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최근

게재됐다.

콜레스테롤은 세포 지질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으로, 사람은 그 중 약 50%를 음

식으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생체 내에서 직

접 합성하여 공급한다.

임 교수팀은 특정 단백질들(LAM-) 등이

콜레스테롤 분자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단백질에 의한 스테롤 지질의

세포 내부 분포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일보 유제관 부국장 ‘賞남자’

문화·스포츠 부문 ‘이달의 편집상’

광주일보 유제관(사진) 부국장의 ‘賞남자’

〈2017년 12월25일자 20면〉가 한국편집기자

협회(회장 김선호) 제196회 ‘이달의 편집상’

문화·스포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편집상’은 전국 일간신문 52개사

회원 1000여 명의 투표로, 종합, 경제·사회,

문화·스포츠, 피쳐 등 4개 부문 각 1개 지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유 부국장은 ‘하여가 단심가’〈2017년 11월20일자 1면〉로 195

회 이달의 편집상 종합부문을 받은 데 이어 두 달 연속 이달의 편

집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賞남자’는 KBO 한국시리즈

11번째 우승을 이끈 KIA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정규리그 MVP,

한국시리즈 MVP 등 11개 상을 독점한 기사를 수상 장면



을 담은 사진과 함께 배치했다. 또 아이돌 방탄소년단 노래 ‘상남자’에 착안한 제목으로 상향을 제치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반부패 청렴 결의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문홍식)는 최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조합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열었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제공〉

전남도선관위, 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도선관위와 22개 시군 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방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석원·최순님씨 아들 광택군 권철호·황희순씨 딸 서아양=28일(월) 낮 12시 데케이 웨딩홀(전 광주 교직원 웨딩홀) 3층.

종친회

▲순천박씨 돈녕공파 정기총회=30일(화) 오전 10시30분 서구 쌍촌동1243-13(승평회관4층) 010-6620-7507.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 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

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

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동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자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 문화의 집 수강생=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문양례씨 별세 양종만(이화여대 명예교수)·혜영(전 광주시의원)씨 모친상 김지영(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씨 시모상 정대중(정양해운 선장)·김점수(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오원만(전남도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씨 빙모상=발인 23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2-220-3352.

▲진승자씨 별세 최영호(광주 남구청장)씨 부인상 =발인 23(화) 조선대학교병

원장례식장 2호실 062-220-3352.

▲전중우씨 별세 천정일·재영·미애씨 부친상 윤영애·조세진씨 시부상 이기국·정병원씨 병부상=발인 2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5분향소 062-231-

8905.

▲김이순씨 별세 박일주·은영·소영씨 모친상 이서연씨 시모상 백경철·신호씨 빙모상=발인 2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062-220-3352.

상가 故人的冥福을 빕니다	
102호故임인숙 남(여/102세) 子/子婦 : 박영철/양문자, 영례/안인실 女/婿 : 박복희/김종선, 복임 孫 : 박예희, 재진, 수경, 김옥영, 지영, 미영 ●발 인 : 1월 23일 ●장 지 : 영락공원	301호故양주승 남(남/91세) 子/子婦 : 양동환/김경모, 동호/전예숙, 동술/김경숙, 범준/김은아 女/婿 : 양동희/정학기, 선희/송문선, 숙희/김옥진 孫 : 양용태, 현준, 성관, 성원, 정서영, 미영, 현영 未亡人 : 민발순 ●발 인 : 1월 23일 ●장 지 : 화산 청룡 선영
401호故변기홍 남(남/78세) 子/子婦 : 변동태/이숙자, 동인 女/婿 : 변순림/추규선, 변지영 孫 : 변아영, 응삼, 추선민, 상운 ●발 인 : 1월 23일 ●장 지 : 청성 복이만 선영	101호故오연택 남(남/68세) 子 : 오정복 女/婿 : 오민경/정봉원 孫 : 오태경, 민나, 정다은 ●발 인 : 1월 24일 ●장 지 : 영락공원
402호故최병조 남(남/84세) 子 : 최하균 女/婿 : 최애경/김현우, 숙영/김성재, 선희/이준선, 선덕/문훈용 孫 : 최재은, 마원경, 성원, 김주희, 주아 未亡人 : 이정심 ●발 인 : 1월 23일 ●장 지 : 영락공원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 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재길 www.mykumho.com